

사순절 둘째 주일 / 선교 교육 약정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IN LENT

주후 2024년 2월 2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66 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통일 48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25 번 사순절 (2)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창(Genesis) 17:1-7, 롬(Romans) 4:13-25	이복희 집사
찬 양 Anthem	“나 위하여 죽으셨네”	찬양대
설 교 Sermon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내 삶의 이유라”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322 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통일 35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 “마음에 할례를 행하며 다시는 목을 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교만했고 또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또한, “얼마나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분주하기만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하여,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 10:16)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개역개정 창17:7)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as an everlasting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for the generations to come, to be your God and the God of your descendants after you.” (NIV Genesis 17: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25 (주일)	2/26 (월)	2/27 (화)	2/28 (수)	2/29 (목)	3/1 (금)	3/2 (토)
	출8	출9	출10	출11	출12	출13	출14
본문	눅11	눅12	눅13	눅14	눅15	눅16	눅17
	욘25,26	욘27	욘28	욘29	욘30	욘31	욘32
	고전12	고전13	고전14	고전15	고전16	고후1	고후2

수/요/ 찬/양/ 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2/28 오후7:30)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벤험21-10상)
토요 새벽기도회 (3/2 오전6:30)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128:1-6)

지난 주일(2/18)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가복음 19-15)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로부터 시작하여, “부활주일(Easter)”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교회에서는 사순(四旬)절로 지켜왔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마다, 어김 없이 언급되는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인 오늘, 성서일과(Lectioary) 본문(막19-15)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 담겨있습니다. 즉, 1)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막19-11)에서부터, 2) 갑자기 광야로 내몰리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막11:12-13), 그리고 3)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막11:14-15)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 사함의 세례가 필요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광야의 시간 곧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까?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다바르”)와 그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 보내셔야 했던 “광야의 시간”은 곧 “말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시간” 곧 “광야의 시간”이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절제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